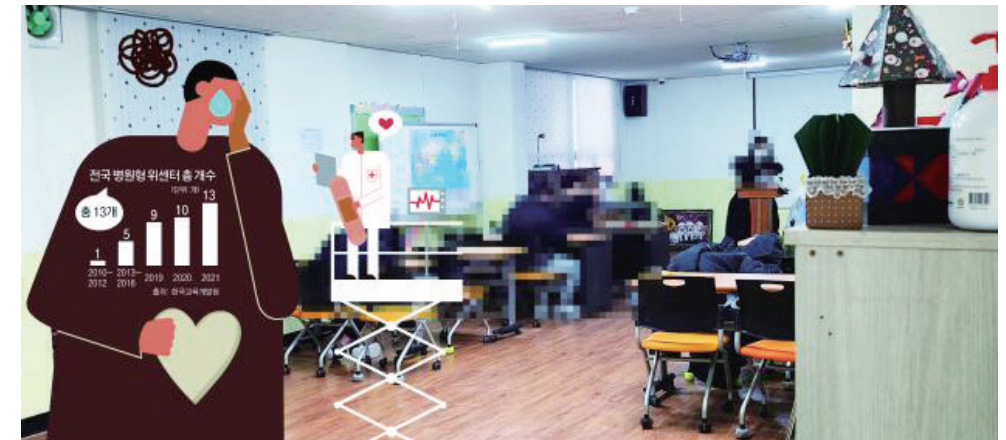


기자, 데스크 그리고 어른



全南日報

노병하 기자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수업현장 모습

경찰서를 처음 출입하던 기자 초임 시절, 모르는 경찰들에게도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를 하고 한 번이라도 본 경찰에겐 ‘형님’ 이라 부르고는, 별것도 아닌 사건 한 조각을 물기 위해 그들 뒤를 서성이며 기다리던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렇게 인맥쌓기에 다름없는 소득 전무의 취재를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화장실에서 어색한 웃음이 달라붙은 얼굴을 씻어내고, 새벽 두어시 쯤 집으로 돌아갔다.

길고 긴 어두운 도로를 달려 불 꺼진 집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면, 항상 있어야 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잠겼고, 들킬 세라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몇 시간 뒤 보고해야 할 것들을 머리맡에 쌓아 둔 채 선잠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한 문장을 쓰

기 위해 여러 명을 만나고 수십번을 고치던... 베리 본즈의 약물 사건을 보고 타이거즈 선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보던... 선배 기자들의 술 시중을 듣다 술집에서 잠이 들던... 어쩌다 남들과 다른 기사 몇 번 썼다고 뭐라도 된 듯했던 그 어린 기자는... 변한 것 없이 나이만 들었을 뿐이었다. 변한게 있다면 기자에서 데스크로 바뀌었다는 정도.

처음에는 배운 대로 부원들에게 지시했다. 배워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채 석달도 필요치 않았다.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직업에 대한 회의’ 를 거의 매일 느끼게 해줄 정도로 우리가 욕먹어가며, 욕하며 배웠던 것은 새로운 세대들의 배움과 범위 부터가 달랐다.

우리 세대가 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그 무엇이 고루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고루함을 고수한 댓가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오지 않는 20-30대란 시간과 무심코 지나친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하게 흘렀을까. 그간 기자상이라는 배지 심수개를 달았지만, 잘나진 것은 아니었다. 또 제법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알고 지낸다 하여 힘있는 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 언저리도 가보지 못했다. 그때 만났던 사람, 절실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 100명 중 1명만 곁에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데스크가 된 지 46개월, 그 중 36개월을 사회부장으로 있었다.

지금은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를 돌아 보면 기억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술자리에서 무용담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도 제법 있었을 터인데도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아등바등한 기억뿐.

그나마 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2022년 12월에 보도됐던 ‘가성비 없는’ 기사 정도다.

바람이 제법 매섭던 11월 중순이었다. 사회부원 한 명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병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데,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됐다”고 보고했다. 호기심이 들어 세부 보고를 받았다.

정리하자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병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관계기관의 지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병원도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 위탁교육을 안하기로 한 것이다.

몇 명이나고 물었더니 30여 명이라고 했다. 아는 사람은 안다. 솔직히 가성비 없는 취재다. 비리나 사고, 사망 등의 내용도 아닌데다 다수가 피해를 본 사안도 아니다. 심지어 이런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공통의 관심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이런 류의 기사 취재는 신중하고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아픈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위탁교육을 해지하는 병원의 협조도 당연히 얻을 수 없었다. 협조는 고사하고 소송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그들도 지쳐 있었다.

실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초벌 취재를 했던 기자로부터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만약 기사에 우리 병원을 지목하는 단어들이 명시되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라는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다. 그들이 힘겹게 이끌어 온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렵고 품은 많이 드는데,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 ‘과연 이 기사를 쓰게 해야 하나’ 담당 데스크로서 고민이 생길수 밖에 없다.

허나 상황은 생각보다 급박했다. 아이들은 곧 병원에서 나가야 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급해졌다. 지역의 큰 병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결국 고민 끝에 일단 취재를 허락했

다. 두 명의 기자가 투입됐고 그들은 신속하고 신속히 움직였다. 또 단독방을 따로 만들어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매일매일 여러 이야기가 올라왔다. 그렇게 두 주가 흘렀다. 두 명의 부원이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부원들의 하중이 커졌다. 지역신문의 비애다. 만성적인 인원 부족.

한 부원이 물었다.

“시리즈로 가실 건가요?”



애초에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데스크가 되면서부터 더욱 획일화 돼 버렸다. 특히 사진은 거의 찍질 않아 위의 사진은 사진부 후배가 세미나 참석때 내 모습을 찍어 보내온 것이다.

“아니”

“사회면 톱 하나에 2주일은 너무 가성비 없는데요”

“안다”

취재가 마무리됐어도 또 다른 난관이 있었다. 편집국장을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그 선배 역시 내가 처음했던 ‘가성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족속들이니까.

놀랍게도 편집국장은 보고를 듣고 1면, 2면, 3면에 게재하는 대형기획인 ‘일주이슈’로 가자고 했다. 솔직히 눈물나게 고마웠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과감하게 지시한 선배에게 감사를 표하며 부원들에게도 알렸다. 모두들 ‘캔슬’을 걱정했는데 ‘판’이 커지자 환호했다.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 딱히 답이 생 각나지 않는다. 굳이 가져다 붙인다면 우

리가 ‘어른’ 이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어떤 이유(왕따, 가정폭력, 성폭력 등)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아이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있었다. 어느 날 그곳이 갑자기 사라진다. 더욱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

이런 사실을 지역신문의 사회부 기자가 알았다. 그렇다면 가성비를 따지기 전 ‘적어도 어른들이 아이들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는 당연한 명제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이들이 돌아갈 곳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 말이다.

오래 준비한 만큼 기사는 수월하게 나왔다. 아이들의 이야기, 병원의 이야기, 시교육청의 이야기, 타 지역의 해법 등. 내 놓을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

그리고 기적이 발생했다. 보도 직후 광주성요한병원이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을 품어주겠다는 뜻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해 온 것이다. 광주기독병원도 새로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되어주겠다고 나섰다. 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내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치료·교육해 줄 ‘병원형 위(Wee)센터’ 관련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귀순 시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이 고생했다”며 “다만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새로운 기관이 나타나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또 병원형 위센터가 접근성이 높은 서부 쪽에 추가로 더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래, 이리 늘어놓고 보니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이다. 그저 ‘어른들이 아픈 아이들을 지켜낸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다.

그럼에도 이리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데스크가 되고 나서부터 줄곧 시달렸던 기자란 직업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내렸기 때문 아닐까.

아니다. 이런저런 의미보다는 사실 딱 하나의 문장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취재기자에게 했던 부탁의 한 문장.

“여기 친구들과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전남일보 노병하 기자